

##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디도서 2:13의 번역 문제—

김영인\*

### 1. 들어가는 말

디도서 2:13을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이고 구문적인 번역의 어려움뿐 아니라 목회서신과 바울서신 전반에 걸친 기독교론의 해석까지도 다루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sup>1)</sup> 한국 개신교 17개 교단이 공식 예배용 성경으로 지정한 『개역개정』(1998)에는 이 디도서 2:13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 καὶ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고 번역되었다. 이 번역은 디도서 2:13을 번역할 때 논쟁의 정점에 있는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며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구분할 수 있는 서술어나 수식관계 없이 그저 나란히 나열함으로 미묘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번역이 디도서 2:13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하나님과 구주라는 칭호들이 삼위일체의 1위(성부 하나님)께 돌려

---

\* KiHo Wuppertal/Bethe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petyoungin@gmail.com](mailto:petyoungin@gmail.com).

1) 예를 들면 비교적 최근의 논쟁인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홍인규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654-661[영어판은 2008년 출간], 또한 고든 피(Gordon D. Fee)의 견해를 반박한 Robert M. Bowman, Jr., “Jesus Christ, God Manifest: Titus 2:13 Revisited”, *JETS* 51:4 (2008), 733-752를 참조하라. 또한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T Clark, 1999), 276-282. 또한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김득중 역, 국제성서주석 4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206-211을 참조하라.

지는 존칭인지, 아니면 2위(성자 예수님)에게 돌려지는 존칭인지,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1위와 2위 양자에게 각각의 칭호가 나뉘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논하는 one person 혹은 two persons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자들은 이 번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Ἰησοῦς Χριστός)가 그 앞에 나오는 “크신 하나님”(μεγάλος θεός)의 서술어(1위의 문제)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는 것(2위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또한 하나님(1위)과 예수 그리스도(2위)의 가운데 자리한 “구주”(σωτήρ)가 “크신 하나님”에 걸리는 하나님의 존칭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칭인지도 구별하기 어렵다.<sup>2)</sup> 이런 이유로 대중적인 영어 성경들도 일치된 번역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 그리스어 원문의 난해함을 표출한다. NIV와 NAS는 이 구절을 “...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로 번역하여 “하나님과 구주”를 하나로 묶고 그 앞에 쉼표(콤마)를 둠으로 이 두 존칭이 one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번역을 시도하였고, RSV와 KJV는 “...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로 번역하여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돌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two persons로 번역하고 있다.<sup>3)</sup> 영어 성경의 이 두 가지 다른 번역경향은 이 소고의 제목처럼 디도서 2:13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문제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역개정』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번역은 이 문장 안에 내재된 신학적 고민을 외적 번역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다소 모호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한 하나님” 사이에 위치한 καί의 번역을 배제한 것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성경번역이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과 『현대어』 그리고 『새번역』 등은 이 구절을 공히 “위대하신/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로 번역하여 위에서 제기한 καί를 번역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타날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모두 디도서 2:13의 번역과 해석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바른 번역과 해석을 위한 근거와 모델을 요청하고 있다고

2)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276-282;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54-661;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206-211 등을 참조하라.  
3) NAS와 NIV는 KJV를 따라 two persons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에 관하여는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56-657을 참조하라. NEB의 경우도 two persons로 번역하지만 그 강조점은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공식예배용 성경으로 채택된 『개역개정』 4판은 예배의 도움과 성도들의 바른 신앙관 형성을 위해 올바른 번역을 제공할 책무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소고는 먼저 이 본문을 본문비평 방법에 따라 원문을 재구성하고 그 정확한 문법적, 구문적 분석을 시도하여 본문을 적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틀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바른 번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들을 살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역개정』이 어떤 번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조망하여 앞으로 재판 될 『개역개정』의 바른 번역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디도서 2:13의 본문 분석

디도서는 바울서신 중 목회서신의 범주에 속한다.<sup>4)</sup> 그것은 디도서의 내용이 같은 목회서신 계열에 속하는 디모데서와 같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건덕(健德) 뿐 아니라 출몰하는 이단과의 올바른 대처 등이 내용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레데에 남아 있는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목회지도를 하고 있다. 디도서 2:13은 소위 가정규칙(Haustafel)으로 잘 알려진 부분인 2:1-10과<sup>5)</sup>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동기를 설명하는 2:11-15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따라서 2:13은 전후 근접 맥락을 같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 구절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관한 가르침이다.<sup>6)</sup>

### 2.1. 본문비평

다양한 사본과 그 안에 포함된 본문의 다채로운 변경들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원문에 일치할까를 찾아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디도서 2:13은 비교적 간단한 본문역사를 갖고 있어 다행히 그 독법(讀法)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Nestle-Aland 28판(NTG<sup>28</sup>)은 본문을 전승한 세 가지 단순한 독법을 제안한다. 관건은 본문의 제일 뒤에 위치한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4)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이래로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 유래에 관한 약사(略史)는 다음을 참조하라. Petr Pokorný and Ulrich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655.

5) 골 3:14-4:1과 엡 5:21-6:9를 참조하라.

6) Robert W. Wall and Richard B. Steele, *1&2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2), 352-353을 참조하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이다. 디도서 2:13의 첫 번째 독법은  $\kappa^* F G b$  사본 등에서 Χριστοῦ Ἰησοῦ로 읽는 것이고, 두 번째 독법은 소문자 사본 1739를 따라 Χριστοῦ를 생략한 채 Ἰησοῦ만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법은  $\kappa^2 A C D \Psi 0278. 33. 1881 M \text{ lat sy}$  그리고  $Cl Lcf Ambst Epiph$  같은 교부들의 인용에서처럼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로 읽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독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NTG<sup>28</sup>이 제공하는 세 가지 독법 중에서 질적, 양적 판단 기준에 의하면 세 번째 독법이 더 원문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독(異讀)이 발생한 본문의 전승을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다. 먼저 목회서신에서 디도서 2:13처럼 본문에 ἐπιφανεῖα 그리고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가 연관성을 갖고 나타나는 본문을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6:14하는 μέχρι τῆς ἐπιφανεῖα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고 전승하며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로 읽고 있다. 디모데후서 1:10상은 φανερωθεῖσαν δὲ νῦν διὰ τῆς ἐπιφανεῖας τοῦ σωτῆρος ἡμῶν Χριστοῦ Ἰησοῦ로 전승하며 (σωτῆρος ἡμῶν) Χριστοῦ Ἰησοῦ로 읽는다. 이런 현상은 디도서 자체에서도 나타나 1:1과 3:6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1:4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읽는다. 이것은 바울서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sup>7)</sup>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타나는 본문에서는 이런 혼동이 자주 발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관한 이런 자리바꿈은 2:13에서도 사본 전승과정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그 만큼 이 호칭은 쉽게 교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디도서의 1순위 상비증거(Ständige Zeugen erster Ordnung)도 첫 번째 독법과 세 번째 독법을 증거 하는 대문자 사본들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9세기의 사본인 F G보다는 5세기의 사본인 A C D가 더 원문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세 번째 독법을 지지하는 다수의 사본들과 고대 라틴어, 시리아 번역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향성이, 왜 시내산사본( $\kappa$ )이 본문을 Χριστοῦ Ἰησοῦ로 증거하다가 7세기경에 이르러 그 본문을 다시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로 교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늦게라도 원문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디도서 2:13은 NTG<sup>28</sup>이 세 번째 독법으로 제시한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 καὶ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본문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7) 예를 들면 롬 1:6과 2:16에서 “예수 그리스도”, 갈 1:12와 2:16에서 “예수 그리스도” 등.

UBS(United Bible Society)의 5판 GNT(Greek New Testament)도 이 본문을 지지하며, 그 본문을 따르는 대표적인 번역으로 영어권의 AV, RV, ASV, RSV, NEB와 독일어권의 취리히 성서(Zür)와 루터성서(Luth)를 그 예로 들고 있다.

## 2.2. 언어 문장론적 구문 분석

디도서 2:13은 2:11에서 시작하여 14절에 끝나는 다소 긴 문장 속에 들어 있다. 이 긴 문장은 내용적으로 원인과 이유의 접속사 γάρ로 유도되어 위에서 열거한 가정규칙(2:1-10) 준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이 문장은 ἡ χάρις τοῦ θεοῦ σωτήριος πᾶσιν ἀνθρώποις(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로 ἐπεράνη(나타났다)를 정동사로 삼는 주절(11절)과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포함한 “우리”를 목적격(ἡμᾶς)으로 사용하는 분사 παιδεύουσα(양육하다, 가르치다)가 이끄는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다. παιδεύουσα는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 ἵνα를 통해 하위의 긴 종속절을 구성하는데, 이 ἵνα 접속법 안에는 접속법 동사 ζήσωμεν(살다)과 위에서 언급한 “우리”를 주어로 삼는 단순과거 분사 ἀρνησάμενοι(부정하다, 거부하다)와 현재분사 προσδεχόμενοι(기다리다)가 들어 있다. ἵνα 접속법 안에서 사용된 두 번째 분사 προσδεχόμενοι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13절 문장의 뼈대로 문장 안에서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ὅς와 ἵνα를 가지고 그 하위에 관계대명사절과 목적의 종속절을 만든다(14절). 따라서 디도서 2:13은 먼저 촘촘히 엮여 한 문장을 이룬 2:11-14의 문장결집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προσδεχόμενοι는 대등 접속사 καί로 등가의 목적어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복스러운 소망)와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영광의 나타남)를 갖고 있다. 이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는 속격을 통해서 그 꾸밈을 확장한다. 이 때 확장된 속격이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크신 하나님)와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또한 접속사 καί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은 καί의 기능을 문법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καί의 좌우에 자리한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와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관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다. 접속사 καί는 보통 연결사로서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부사적 기능을 하며 ‘또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sup>8)</sup>

8)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442 참조.

여기서 καί가 “그리고”라고 번역되어 양자를 대등한 의미로 결합할 때, “(크신) 하나님”과 “(구원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문법적으로 두 인격체 (person)를 의미하고, 만일 부사적으로 번역되면 “(크신) 하나님”과 “(구원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apposition)이 된다. 또한 여기서 καί는 소위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의 법칙에서 등장하는 TSKS(The-Substantive-καί-Substantive) 구조를 형성하는 καί로 볼 수도 있다.<sup>9)</sup> 이 경우 즉 관사-명사- καί-명사일 경우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σωτήρος 이후에 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θεοῦ와 (σωτή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디도서 2:13은 대등접속사로서 기능하는 첫 번째 καί와<sup>10)</sup> two persons 혹은 one person으로 해석해야 할지가 모호한 두 번째 καί에 따라 아래의 두 구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11)</sup>

■ two persons 구문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  
καί (첫 번째)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ί (두 번째)  
 σωτή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는 기다린다) 복스러운 소망

과(첫 번째 καί)  
 영광의 나타남(을)  
 크신 하나님(의)  
과(두 번째 καί)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9) TSKS 구조가 기독교론적 구문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의 법칙과 그 용례에 관하여는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Toronto: Harper Collins, 1996), 276-277과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58-659를 참조하라.

10) 이 첫 번째 καί 역시 꼭 대등접속사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또한”, “역시” 등으로 활용되는 설명적 기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καί만큼 해석과 의미의 상충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도 없다. 이것에 관하여는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역, WBC 성경주석 46 (서울: 솔로몬, 2009), 844 참조.

11) 고든 D. 피의 경우 딤후 2:13에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구문을 예로 들고 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로 충분하다.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56-657을 참조하라.

■ one person 구문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

καὶ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는 기다린다) 복스러운 소망

과(첫 번째 καί)

영광의 나타남(을)

크신 하나님과(두 번째 καί)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καί로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two persons 구문의 경우 샤프의 규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고든 피(Gordon D. Fee)도 이 경우에 대해 예수를 하나님(θεός)으로 명시적으로 부르는<sup>12)</sup>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잘못된 번역으로 일축하지만,<sup>13)</sup> 그 반론도 만만치 않다.<sup>14)</sup> one person 구문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 번째 καί로 결합되어 하나의 칭호로 여겨지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가<sup>15)</sup> 하나님께 돌려지는 존칭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존칭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one person의 해석 문제는 결합된 존칭으로 평가되는 θεός와 σωτήρ가 1위인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존칭인가 아니면 2위인 성자 예수께 돌려지는 존칭인지를 확정짓는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시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론뿐만 아니라 적어도 목회서신과 바울서신 안의 기독교론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되어 본 논문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문의 중심에 있는 두 칭호인 θεός와 σωτήρ에 주목하고 내용의 전개도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12) 말하자면 요 1:1; 20:28; 롬 9:5; 벧후 1:1.

13) Ibid., 658-659.

14) 래리 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834, 특히 같은 쪽 각주 69를 참조하라. 또한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277-278과 Robert M. Bowman, Jr., “Jesus Christ, God Manifest: Titus 2:13 Revisited”, 742-743을 참조하라.

15) θεός와 σωτήρ가 하나로 결합된 단일한 존칭이라면 σωτήρ 뒤의 ἡμῶν(우리의)은 해석상 θεός와 σωτήρ 양자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앞으로 나와야 한다.

안에서만 다루기로 하자.

### 3.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해석

디도서 2:13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논쟁의 정점에는 예수에게 명시적으로 돌려진 θεός 존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있다. 물론 θεός και σωτήρ가 하나로 결합되어 호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sup>16)</sup> 논쟁의 핵심은 디도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가와 디도서 2:13에서의 θεός 존칭이 예수를 말하는가이다. 또한 논의를 위해서는 σωτήρ도 목회서신과 디도서 2:13에서 누구를 존칭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고든 피는 목회서신이 쓰인 시대에 θεός와 σωτήρ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께 구분 없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sup>17)</sup> 그렇다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두 호칭이 사용되었는지 교차검사(cross check)가 필요하다.

#### 3.1. 예수가 θεός라고 불리는가?

래리 허타도(Larry W. Hurtado)는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숭배하는 현상을 “폭발적” 혹은 “돌연변이적”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빌어 설명하면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프로그램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추측한다.<sup>18)</sup>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고백 형식에서<sup>19)</sup> 자주 등장하는 예수의 호칭인 “주와 하나님의 아들”에서 θεός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υἱὸς θεοῦ) 칭호는 본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아니다. 반면에 주(κύριος)는 구약성경의 신성사문자인 יהוה에 대한 LXX의 번역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배타적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초기 기독교의 혁신을 반영하는 것이다.<sup>20)</sup>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

16) Jerome D. Quinn, *The Letter to Titus*, The Anchor Bible 35 (New York: Doubleday, 1990), 156;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52; Robert W. Wall and Richard B. Steele, *1&2 Timothy and Titus*, 354를 참조하라.

17)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49-650, 653 등.

18) 래리 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 40과 138-139 등에서 주후 약 30-50년 경으로 추정한다.

19) 예를 들면 롬 1:2-4.

20) 래리 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 150, 830;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7, 427을 참고하라.

도전서 2:8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을 “영광의 주”라고 달리 말한 것은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하나님이신 주(κύριος)로 공경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θεός)으로 부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 θεός로 불리는 구절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디도서 2:13을 제외하면 요한복음 20:28과 로마서 9:5 정도이다.<sup>22)</sup> 먼저 요한복음 20:28의 “ὁ κύριός μου καὶ ὁ θεός μου”(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은 당시의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 무엇이였을까라는 질문을 보류하고,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만 집중해서 보면 부활하신 분을 θεός로 부르고 있음이 분명하다.<sup>23)</sup> 로마서 9:5의 경우 『개역개정』이 “... 그리스도(ὁ Χριστός)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ὁ θεός)이시니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구두점이 없는 사본전승에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ὁ θεός는 ὁ Χριστός의 술어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송영이 될 수도 있다.<sup>24)</sup> 그 경우 이 부분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리라”로 되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불렀다고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고든 피에 따르면 바울은 ὁ Χριστός를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ὁ θεός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sup>25)</sup> 그렇다면 고든 피가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간의 ‘전환현상’ 혹은 ‘상호교환’은 위의 예를 통해서도 이미 모순임을 볼 수 있다.<sup>26)</sup>

결국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간에 발생했던 칭호의 상호교환은 적어도 신약성경 안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둘 수밖에 없다. 주(κύριος) 혹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 볼 구주(σωτήρ)의 상호교환과 전환현상은 그 뚜렷한 예와 증거를 들 수 있지만 θεός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21)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79.

22) 래리 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 1020;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66을 참고하라.

23) 도마의 신앙고백에 있는 Sitz im Leben과 문법 그리고 번역의 문제는 다음을 참고하라. Rudolf Bultmann, *Das Evangelium des Johannes*,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538과 같은 쪽 각주 7, 8.

24) 고든 D. 피, 『바울의 기독교론』, 420-427, 특히 421. 예를 들어 영어성경의 NRS, NAB, NAS 등은 하나님을 위한 송영으로 번역한다.

25) Ibid., 426-427.

26) Ibid., 651에서 고든 D. 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호칭의 상호교환 현상이 바울서신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까지 부연한다.

### 3.2. 하나님이 σωτήρ라고 불리는가?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구주(σωτήρ)로 알려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구주이시다.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 32장에서 노래하고 있다.<sup>27)</sup> 또한 다윗은 그의 시편 25:5와 27:9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노래한다.<sup>28)</sup> 구약성경에서 간혹 σωτήρ가 사사, 왕, 신적인 인간 혹은 메시아를 지칭할 수 있지만 ‘구원, 자유, 해방’ 등과 같은 행위의 동인과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 분이 σωτήρ로 나타난다.<sup>29)</sup>

구약성경의 영향 탓에 σωτήρ는 신약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존칭으로 나타나지만, 빈번히 그리스도의 존칭으로도 사용되어 피가 주장하는 ‘상호교환’과 ‘전환현상’의 좋은 사례가 된다.<sup>30)</sup> 사실 σωτήρ는 신약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칭호로 사용된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도서 2:13을 제외하면 목회서신에서는 이 칭호가 명시적으로 6번이 하나님께, 3번이 그리스도께 사용되어 오히려 이 칭호는 하나님께 더 우세하게 사용되는 호칭인 것을 읽을 수 있다.<sup>31)</sup> 쉘클(K. H. Schelkle)에 따르면 특히 목회서신에서 σωτήρ 칭호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초기 기독교의 후기 현상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라는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σωτήρ가 기독교적 칭호로 굳어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32)</sup> 즉 σωτήρ는 본디 하나님의 칭호이지만 이제 구원(자)의 기능이 그것을 계획하신 분에서 그것을 수행한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면서 그 호칭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도서 3:4-6은 상호교환의 좋은 예로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같이 σωτήρ 칭호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주체이시지만(ὅτε δὲ ... τοῦ σωτήρος ἡμῶν θεοῦ, 4절)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이심을 천명하고 있다(οὗ ἐξέχεεν ...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σωτήρος ἡμῶν, 6절).

27) 특히 신 32:15 LXX, “...ἀπέστη ἀπὸ θεοῦ σωτήρος αὐτοῦ.”

28) 시 25:5 LXX (24:5), “/...σὺ εἶ ὁ θεὸς ὁ σωτήρ μου....” 그리고 시 27:9 LXX (26:9), “/... ὁ θεὸς ὁ σωτήρ μου.”

29) G. Fohrer, “σωτήρ”, G. Friedrich, ed., G. W. Bromiley, trans., *TDNT*, vol. VII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1), 1012-1013.

30) 하나님께 8번, 그리스도께 17번 사용된다.

31) 하나님께 딤후 1:1; 2:3; 4:10; 딤후 1:3; 2:10; 3:4, 그리스도께 딤후 1:10; 딤후 1:4; 3:6; 2:13(?).

32) K. H. Schelkle, “σωτήρ”, H. R. Balz and G. Schneider, eds., *EDNT*, vol. III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3), 325-327. 쉘클(K. H. Schelkle)은 요 4:42에서 사용된 “σωτήρ” 칭호가 요한복음의 저작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목회서신과 우리가 관심하는 디도서에서 σωτήρ 칭호는 하나님께 더 일반적이고 그 주제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만 신학적 사고 안에서 그것을 수행한 그리스도에게 그 호칭이 전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이 호칭은 같은 문맥 안에서 전혀 문제없이 양자에게 동시에 사용되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디도서 2:13에 나오는 σωτήρ는 단순히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어느 한 쪽을 부르는 칭호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 4. 디도서 2:13의 한글성경 번역 역사

여기서 디도서 2:13이 어떤 역사와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성경으로 번역, 정착되었는지 그 번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한글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디도서 2:13이 one person 또는 two persons,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칭호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글성경 번역사에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번역본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만 간략하게 다루어 이 논문의 결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신약성경의 한글번역은 1870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그리고 1884년에는 일본에서 이수정(李樹廷)이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신약 각권 혹은 단편적인 번역에 불과했다. 한글신약성경의 첫 번째 완역은 로스와 매킨타이어에 의해서 1887년에 발간된 『예수성교전서』<로스역>이다.<sup>33)</sup> 하지만 세로 읽기로 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뒤에서만 ‘뒤 띄어쓰기’를 할 뿐 모든 문장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평안도 사투리와 문법의 오류가 현저하게 나타난다.<sup>34)</sup> 『예수성교전서』가 배태한 이런 내적문제와 선교의 각축장이 된 조선반도의 미묘한 외적 상황은 시대적 요청으로 또 다른 한글성경 번역을 필요로 했다.

두 번째 한글신약성경의 완역은 주미선교사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예수성교전서』가 <로스역>이라는 별칭처럼 어느 정도 개인역의 성격을 가진다면 1900년 완역되고 1906년에 개정된 『신약전서』는 외국의 성서공회가

33)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대한성서공회 편,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7-54, 7-8, 22-23.

34)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23-24;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4권 2호 (2010), 99-132, 103-104, 110-111.

주도적으로 설립한 번역위원회의 결실로 볼 수 있다.<sup>35)</sup> 사실 번역위원회를 통한 신약성경의 두 번째 완역은 1900년 판 『신약전서』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단편성경들의 임시역을 합본한 성격일 뿐 아니라 많은 오류가 노출되어 여러 번의 개정작업이 필요했다. 이 성경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듭한 끝에 1906년에 이르러 <공인역>이란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디도서는 위 번역위원회에 의하여 1898년 이후 <딤펴모데전서, 딤펴모데후서, 디도서>라는 단편성경에 속해 있었고 번역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가 담당했다.<sup>36)</sup>

<공인역>은 다시 원어의 의미에 근접하고 한국어 품에 최대한 가까운 번역을 추구한다는 두 가지 목표아래 개역(改譯)이 시도되었다.<sup>37)</sup> 새로운 번역작업이 시도된 이면에는 성경번역에 대한 조선교회의 각성과 주체적 자각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sup>38)</sup> 1926년부터 시작된 이 개역작업은 약 10년이 지난 1937년 완료되었고 1938년에는 역시 같은 해에 개역이 완료된 구약성경과 합본되어 『성경개역』으로 발행되었다.<sup>39)</sup> 이렇게 완성된 성경은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에 따라 다시 수정된 후 오늘날 『개역개정』과 『표준』의 밑절미가 되는 『개역』(1961년, 표제지에는 1956년)으로 세상에 빛을 보았다.

위에서 상고한 약사는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 1887년 『예수성교전서』, 1906년 『신약전서』<공인역>, 그리고 1938년 『신약개역』에 번역된 디도서 2:13을 살피도록 권고한다.

■ 『예수성교전서』(1887)

쥬흔바름과우리높픈하나님과구완흐시는 예수키리쓰토 의영화의 나타니물사모흐라

■ 『신약전서』<공인역>(1906)

브러는 복과 크신 하느님 우리 구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드리게 흐섯스니

35) 당시에 발족된 성서번역위원회와 번역원칙에 관하여는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7-45;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23-25;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 84-85를 참조하라.

36)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45, 49.

37) Ibid., 169-170.

38) Ibid., 160-164.

39)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30-31.

■ 『신약개역』(1938)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하나님구주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스니

『예수성교전서』는 띄어쓰기 없이 연이어 쓰면서 ‘대두’(擡頭)나 ‘뒤 띄어쓰기’를 통하여 글 속에서 경의를 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sup>40)</sup> 이 표시방법에 따르면 “우리높픈하나님과구완흐시느”은 형식적으로 “예수키리쓰토”를 수식하는 one person 구문의 번역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높픈하나님”과 “구완흐시느”이 중간의 “과”(위에서 언급한 원문상의 두 번째 καί)에 의하여 구분되는 two persons 구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수성교전서』가 KJV를 저본으로 삼되 Revised Version (RV)도 충실히 따르려 했다고 가정할 때,<sup>41)</sup> 이 전제는 디도서 2:13에서도 입증된다. 그 이유는 비교적 변함이 없는 디도서 2:13의 본문역사를 감안할 때 『예수성교전서』가 “our [great:누락] God and Savior Jesus Christ”로 번역하여 ‘great’를 누락한 RV를 KJV의 “the [great:포함]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를 참조하여 “우리 [높픈:포함]하나님과구완흐시느 예수키리쓰토”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당시는 아직 디도서 2:13의 one person 혹은 two persons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던 때는 아니지만, RV와 KJV의 번역은 이 번역에 포함된 ‘our’(위 영어번역의 밑줄)의 위치를<sup>42)</sup> 고려할 때도 TSKS 규칙이 깨어져 two persons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성교전서』의 우리 말 번역은 one person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 현상은 다시 1906년 『신약전서』<공인역>과 1938년 『신약개역』에서 각각 “크신 하느님[과:누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크신하나님[과:누락]구주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하여 “과”(두 번째 καί)를 누락시킴으로, 그리고 띄어쓰기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과 구주”인 것이다. 이 번역 전통이 『개역』(1961)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개역개정』(1998)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40) 이어 쓰는 글 속에서 경의를 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998), 120-167, 128을 참조하라.

41)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99-132, 119-120.

42) 그리스어 원문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ἡμῶν(우리의)이 한글성경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한 RV와 KJV에서 각각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와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로 다르게 번역되어 ‘our’가 전자는 ‘하나님’을,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여 two persons 구문의 번역 형태를 취한다.

## 5. 나오는 말

디도서 2:13은 원문 자체가 배태한 구문의 난해함과 목회서신 속에 내재된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론 해석이라는 난제가 복합되어 그 번역이 쉽지 않은 구절이다. 물론 한글성경이 번역, 정착되는 시기에 이 두 가지 문제는 포착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번역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한글성경번역의 주요 저본으로 알려진 RV와 KJV도 각각 다른 번역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초기의 한글성경번역본들은 이 두 성경을 참조하여 종합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의 의심과는 다르게<sup>43)</sup> 심지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도 두 저본의 조화를 이룬 증거들이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 우리말 성경의 중요한 번역본들이 두 저본의 어떤 한 쪽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실 위에서 고찰한 한글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역설적인 것은 RV와 KJV가 two persons 구문의 번역을 취하는 것과 달리 그것을 저본으로 사용한 우리성경은 한글의 띄어쓰기와 그리스어 원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두 번째 καί의 번역을 생략하므로 one person 구문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번역전통이 정착되어 『개역개정』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핀 초기 기독교론에 대한 관찰에 비추어 보면 디도서 2:13의 번역에서 중요한 기독교론적 칭호인 “구주”(σωτήρ)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빈번하게 그 존칭의 ‘전환현상’ 혹은 ‘상호교환’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현상을 “하나님”(θεός) 호칭에까지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해는 디도서 2:13이 그리스어 구문의 외적 형식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두 번째 καί의 번역을 다시 살리면서 θεός는 성부께 그리고 σωτήρ는 성자에게 각각 나누어서 존칭하는 two persons 구문을 자연스럽게 제안한다.

- two persons에 따른 디도서 2:13의 새로운 번역(안)  
 복스러운 소망, 곧<sup>44)</sup>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번역 전통을 따라 지금 유지되고

43)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99-132, 121-125. 아펜젤러는 『로스역』을 대체로 폄하했으며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로스역』이 KJV보다 RV에 의존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44) 여기서는 큰 논란이 없는 첫 번째 καί를 설명적으로 번역했다.

있는 one person 구문을 보수(保守)하려면 지금처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여 중요한 기독교적 칭호들을 그저 나열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락했던 원문의 두 번째 *kai* 를 번역하여 그 의미를 살려 넣고 그 서술 관계도 보다 분명히 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 one person에 따른 디도서 2:13의 새로운 번역(안)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요어>(Keywords)

디도서 2:13, 디도서 2:13의 기독교론, 목회서신의 기독교적 호칭 하나님과 구주, one person/two persons 구문, 한글신약성경 번역사.

Titus 2:13, the Christology of Titus 2:13, God and Savior: christological title in the Pastoral Epistles, one person/two persons phrases, translation history of the Korean New Testament.

(투고 일자: 2017년 7월 12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예수성경전서』, J. 로스 역, 경성: 문광서원, 1887.
- 『신약전서』, 동경: 성서공회(영국성서공회 경성지부), 1906.
- 『성경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998), 120-167.
-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대한성서공회 편,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7-54.
-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4권 2호 (2010), 99-132.
- 디벨리우스, 마르틴, 『목회서신』, 김득중 역, 국제성서주석 4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 바운스, 윌리엄 D.,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역, WBC 성경주석 46, 서울: 솔로몬, 2009.
- 프리드리히, G.,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피, 고든 D., 『바울의 기독교론』, 홍인규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허타도, 래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 Aland, Kurt and Aland, Barbara,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Bowman, Robert M., Jr., “Jesus Christ, God Manifest: Titus 2:13 Revisited”, *JETS* 51:4 (2008), 733-752.
- Bultmann, Rudolf, *Das Evangelium des Johannes*,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Fohrer, G., “σωτήρ”, G. Friedrich, ed., G. W. Bromiley, trans., *TDNT*, vol. VII,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1, 1012-1013.
- Marshall, I. Howar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T clark, 1999.

Pokorný, Petr and Heckel, Ulrich,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Quinn, Jerome D., *The Letter to Titus*, The Anchor Bible 35, New York: Doubleday, 1990.

Schelkle, K. H., “σωτήρ”, H. R. Balz and G. Schneider, eds., *EDNT*, vol. III,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3, 325-327.

Wall, Robert W. and Steele, Richard B., *1&2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2.

Wallace, Daniel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Toronto: Harper Collins, 1996.

<Abstract>

**Is Jesus Christ the Predication of God?: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of Titus 2:13**

Young-in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itus 2:13 causes a significant discussion about the translation as popular versions of the English Bible show the disagreement (NIV, NAS/RSV, KJV etc.). This phenomenon can also be found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s. The key issue of the translation is whether Titus 2:13 calls Jesus “God”. So the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the two titles “God” and “Savior” (θεός and σωτήρ) refer to one person, Jesus Christ (the Son) or to two persons (the Father and the Son). Possibly, the occurrence of this issue is due to the fact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verse, it is necessary to have profound comprehension about the complexity of the origin Greek syntax externally and also about the (Pauline) Christology of early Christianity internally.

In the case of the complexity of the Greek Syntax, we should focus on the two καί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Especially the second καί plays an important role which connects the two titles θεός and σωτήρ. But the difficulties here are to distinguish whether these two titles are tied together only to Christ or whether they are used separately for God and Christ respectively. Unlike what is often mentioned here, I do not think the Granville Sharp Rule (The-Substantive-καί-Substantive) applies strictly. I therefore also see here that the second καί has the function not as an appositional but as an equivalent conjunction. In the case of the title interchange between God and Christ, it is often overestimated in the discussion regarding Christ’s divine nature. Certainly the σωτήρ’s use of God-Christ interchange is widely and frequently recognized. The application of salvation can be the predication of Christ as well as the Father. But for the usage of the title θεός in the phenomenon appears very limitedly and carefully. That is an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and explicitly designate Jesus Christ as θεός.

Beginning with Ross’s first complet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예수 경교전서』 (1887), early Korean Bible versions have been influenced by English

translations like the Revised Version (RV) and the King James Version (KJV).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tradition of these versions, Titus 2:13 in early versions of the Korean Bible has been translated, in terms of content, into the two-persons phrase. Though the process of translating and revising, the text has been modified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language such as *spacing words* and especially omitting the second *καί*. In this regar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which is the official Bible in Korea for liturgy that has inherited this tradition of Korean Bible translation seems to simply give a list of majestic titles. In the next revision of this Bibl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and the theological position.